

33. 숫양과 숫염소의 계시

2012. 8. 12.

금빛 새벽 은혜와 진리시간을 애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7장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 8장을 살펴보고요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경 예언입니다. 그 배경부터 죽 살펴서 예수께서 연구하라고 하신 다니엘서를 7장까지 살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8:1~4]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삼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2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도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래 강변에서니라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1. 다니엘 8장의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니엘서 8장은 언제 어떻게 주어진 계시입니까?

답: 예, 다니엘 8장은 7장의 계시를 본 후 3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봉독한 본문에 의하면 벨사살 3년에 이상을 보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7장이 벨사살 원년에 본 계시이니깐요. 그때가 기원전 553년경이니깐 이때는 기원전 551년경이지요. 역시 바벨론 통치시대이고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2. 이 계시에 등장하는 동물은 맹수들이 아니군요. 양과 염소입니다. 7장에는 네 마리의 짐승이 모두 맹수들이었잖습니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요?

답: 이 동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천사가 해석해주는데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이상의 의미를 알고자하였을 때 다니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라는 음성이 들렸지요. 단8:15,16입니다. 읽어부시지요.

[단8:15,16]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올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리고 20절부터 짐승이 상징하는 실체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읽기 전에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3. 예, 그렇군요. 먼저 그것을 읽은 다음에 해석을 읽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우리는 겨우 8:1~4까지만 읽었으니까요.

답: 그러면 목사님이 5~12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단8:5~12]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었고, 15절부터 25절까지가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충분히 알도록 완전히 해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읽은 내용을 간단히 분석하면 숫양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뿔이 나온 때가 서로 다르지요. 나중 나온 뿔이 먼저 나온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것은 연합왕국의 나중 세력이 더 강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숫양은 대단히 강해서 서 북 남을 찢었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8장의 짐승들은 7장과는 달리 바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강가에 서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제 해석하는 구절에 가서 이런 상태로 보여주신 이유를 생각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나와서 이 막강하여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 숫양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염소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두 눈 사이에 아주 큰 뿔이 하나가 있었지요. 그 숫염소가 스스로 대단히 강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 첫 뿔만 못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니까 네 뿔이 난 어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더니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면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큼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차지합니다. 다니엘이 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의 행패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를 묻는 말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가 표상으로 주어진 계시의 상태입니다. 흥미 있는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4. 예, 대단히 흥미가 있는 사건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은 국가를 표상하

는 것이라고 공부했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국가들이겠네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7장은 모두 대단한 맹수들이인데 8장은 다 순한 짐승들이지요. 양과 염소입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성소봉사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는 짓이 맹수 못지않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가장이 되겠지요. 예수께서 이런 상태를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7:15]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런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속지요.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수단에 속았습니다. 8장의 표상적 계시가 바로 그런 사실을 미리 보여 경고하고 있는데,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말았지요.

5.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그렇게 했는지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실을 말씀하셔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찾기 전에 후반부의 해석을 먼저 읽고 역사적 사실을 찾아야 순서가 맞겠지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니엘 8:15~25을 한 번 읽으실래요? 좀 길기는 하지만요. 절반씩 나누어 읽을까요. 먼저 목사님이 15~22절까지 읽고 제가 23~25을 읽도록 하지요.

[단8:15~22]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올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단8:23~25]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휼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피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피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 천사를 보내어 친히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왕들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이지요. 나중 나온 뿔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봉신국이었는데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역전되었습니다. 메디아가 페르시아의 봉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7장에 꿈을 표상된 나라인데, 8장에서는 수양으로 나타납니다. 꿈은 내적 성질을 보여주는 것

이라면 8장은 겉모습을 나타냅니다. 양같이 나타나서 곰같이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양같은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것이 포로인 유대민족을 해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을 몽땅 죽이려는 음모를 진행했지요. 여전히 메대 바사의 번개할 수 없는 법을 공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곰의 잔인함이지요. 그러나 또한 아닥사스다 시대에 에스라를 필두로 유대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곰과 양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서, 북, 남을 뿔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들이 있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쪽은 리디아인데 고레스가 B.C. 547에 정복하였고, 다음은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늘 북방으로 표시되는 바벨론을 B.C. 539 정복했으며, 다음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을 B.C. 525 정복하였습니다.

6. 그렇군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까? 아직도 벨사살의 통치 초기인데요.

답: 바벨론은 벨사살 13년에 망했지요. 이때가 망하기 10년 전쯤이니까 이미 계시적 안목으로는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민족을 해방할 양과 같은 성질을 나타낼 나라부터 보여준 것이 8장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8장의 계시의 핵심에는 숫염소에게서 나올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염소는 서편에서 나와서 숫양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라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단8:21,22]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숫염소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첫 왕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통일 헬라의 첫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뿔이 갑자기 꺾입니다. 아주 강할 때 꺾이거든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창 강성할 때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대를 이을 장성한 아들도 없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겠느냐고 묻는 장군들에게 강한 자가 차지한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장군들이 갈라져서 12년이라는 세월동안 전쟁을 하고 마침내 네 장군이 그 영토를 나누어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이런 일이 일어나기 250여년 전에 계시적 예언으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 나라는 네 사람의 장군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에 의하여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동편-셀류쿠스=바사 제국의 대부분,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 서편-카산데르=마게도니아, 그리스, 남편-프톨레미=애굽,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 북편-리시마쿠스=트라키아, 소아시아 대부분,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졌지만 그 권세가 알렉산더만 못했던 것은 당연하지요. 이 네 나라에 대하여 예언은 그 권세만 못하리라고 예언했지요. 이것이 이런 일이 있기 200년도 더 전에 예언했고 예언은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예언의 목적인 “일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함이라.”(요13:19)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민게 하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미 지나간 역사를 되살펴보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자칫하면 예언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겠네요. 예언이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피면서 너무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에 감탄하다가 예언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취된 예언이 대단하다는 느낌과 함께 하나님은 참으로 예언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과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는 책이라는 생각에 멈추면 성경과 예언의 진짜 내용인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기가 쉽겠어요. 예언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벌리는 사건들에 대한 것도 말씀하셔야 하겠네요.

답: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나온 곳이 네 뿔 중에 하나에서 나왔다고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되었는데, 우리 교회 학자들의 연구에는 그 번역이 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번역들 중에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바른 성경에는 “그 중 하나에서”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이 “그 중 하나”가 뿔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뿔이 나온 사방의 방향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뿔이 아니고 사방이라는 방위를 가리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은 네 뿔로 표상된 네 나라 중 한 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들이 나온 네 방향 중의 한 방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뿔도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8장은 숫양이 강가에 서 있고, 숫염소는 서편에서 나오고 숫양은 서,북,남을 공격했다고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말했는데, 동은 공격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숫양이 나온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8장은 짐승들이 나온 방향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것처럼 작은 뿔에 대하여서도 방향을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방향 중의 한 방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작게 시작한 뿔이 심히 커져서 어떤 짓을 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단8:9~12]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기록된 내용대로 이 뿔, 곧 이 나라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한 국가입니다. 이것이 심히 커지는데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으로 커집니다. 커진다는 것은 세력을 확장한다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 뿔을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8대왕인 안키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기록된 낱말들을 볼 때에도 그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4절에 숫양에 대하여 강대하더라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고 8절에 숫염소는 심히 강대하더니 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달 메오드”라고 했다. 그런데 작은 뿔에 대하여서 9절에 심히 커지더니 라고 한 말은 “가달 예테르”라고 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강하다는 말이다. 가달이라는 말을 숫양과 숫염소와 작은

뿔에 대하여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 강대함을 형용하는 말이 점점 더 강한 단어들 사용한 것이다. 그것은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 어떻게 시리아의 한 왕을 묘사하면서 국가가 강하다고 표현한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헬라보다 더 강한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상식으로 용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작은 뿔도 페르시아나 헬라처럼 하나의 국가인 것이 확실합니다.

8. 그렇다면 목사님, 왜, 페르시아나 헬라는 짐승으로 표현하였는데, 동일한 국가를 표상적으로 예언하면서 작은 뿔로 표상하였습니까? 아마도 그 점이 석연치 않아서 주석가들이 한 국가의 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답: 참 잘 지적하셨네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단순히 뿔로 표상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한 대로 표현된 낱말의 성질이나 이 뿔의 행사를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이 뿔의 상태를 해석하면 그런 해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뿔의 행사는 이 뿔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페르시아 헬라 다음 나라가 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요. 그러니까 로마제국입니다. 로마는 남편인 애굽을 기원전 168년에 로마에 지배되기 시작하였고, 동편인 셀류쿠스의 나라인 시리아도 기원전 65년에 로마에 병합되었고 그 여세로 영화로운 땅 유대를 기원전 63년에 병합하였습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로마는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으로 심히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히 강대한 즉 가달 예테르가 되는 로마를 작은 뿔로 표상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뿔의 행사가 7장의 작은 뿔의 행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지요. 그런데 7장의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행사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결국 이 둘은 동일한 세력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국로마를 거쳐서 결국 교권로마가 탄생하는 과정을 교권로마에 초점을 맞추고 제국로마는 교권로마가 성립되는 디딤돌 노릇한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표현이 아닙니까. 제국로마도 정말 가달 예테르의 국가로 세상에 군림했지만 그것은 교권로마가 성립하는 발판노릇을 한 것입니다. 교권로마가 진짜로 가달 예테르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살후 2장에서 암시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9. 사도 바울이 이 작은 뿔에 대하여 말했습니까? 흥미 있는 일인데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의 실상에 대하여 잘 기록했습니다. 우선 2:3~7을 읽어봅시다.

[살후2:3~7]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 이 말씀은 7장을 공부할 때 한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6,7절 내용이 8장의 작은 뿔이 제국로마를 경과적으로 표현하고 교권로마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것은 작은 뿔의 활동이 바울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막는 자가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시대적으로는 제국로마입니다. 제국로마가 망하기 전에는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때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의 출현에 대하여 예언된 그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아직도 로마 제국이 건재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예언된 때가 되면 이 교권국가가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이 예언에 대하여서는 7장 공부할 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셔야 애청자들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언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예언이 역사에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생활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답: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할 내용도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면 성경의 예언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오래 전에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뿔의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모방하여 성전에 얹혀놓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참 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을 함께 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겠네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언을 주셔서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진행 속에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확신으로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2. 5. 6.(일)7:35pm.